

현대우주항공 항공우주산업 청사진 제시 한라중공업의 MD-95사업 전격 인수

현대그룹이 1조2천억원을 투자하여 항공우주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현대그룹은 2월13일부로 현대기술개발(주)의 회사명을 현대 우주 항공 주식회사(HYUNDAI SPACE & AIRCRAFT CO.,LTD)로 바꾸고 美 맥도널 더글라스사(MD)에 MD-95 주날개를 생산, 공급기로 했다.

현대우주항공(社長 金容文)에 따르면 이번엔 동 사가 생산, 공급하게 되는 MD-95의 주날개 제작규모는 총 11억불 상당으로 '97년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동 사는 '99년까지 1조2천억원을 투자하여 충남서산등지에 21만평, 경남·전남등지에 40만평 등 총 60만평규모의 항공우주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기 수리개조사업에도 적극 진출하여 항공기 수리개조업체인 美 펌코(PEMCO)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1차로 세계시장의 10%인 16억달러 물량의 항공기 개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주사업에도 적극 진출하여 위성관제 시스템분야는 전자통신연구소(ETRI)와 공동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이미 통산부로부터 위성관제시스템에 대한 생산사업수리신고를 필한바 있다. 동사는 이와함께 현재 위성체 추진기관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위성제작 및 위성이용 사업과 관련된 발사체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함께 日 가와사키 중공업과 기술제휴로 생산하는 8인승 민수헬기 등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책사업인 한국형 다목적중형헬기개발사업에도 적극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MD사와의 MD-95프로젝트는 당초 한라그룹이 MD사와 동 사업을 추진하던중 한라그룹의 항공사업부문을 현대우주항공에 이관함에 따라 생산 공급을 맡게 된 것이다.

現代宇宙航空(株)事業計劃發表 1996.2.13



현대우주항공은 2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MD-95개발사업에 참여할것을 밝혔다.

서울에어쇼 명예대회장 국무총리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 적극 지원

서울에서어쇼 명예대회장이 국방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서울에어쇼는 대회장에 공군참모총장, 명예대회장에 국방부장관 체제로 행사를 준비해 왔는데 해외업체 유치와 관계부처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국무총리가 명예대회장직을 맡아줄것을 건의한 것이 수용된 것이다.

한편 대회장은 공군참모총장에서 장관으로 승격, 국방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대회장을 맡기로 했다.

국내의 업체의 참가 유치, 행사장 준비, 대회 참가자에 대한 입출국 편의, 행사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 외무부, 통산부, 법무부, 건교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서울에서어쇼 행사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Fokker사 인수 협상 삼성항공-봄바르디어로 압축

지난 1월 22일 파산한 네델란드 포커사에 대해 30여개 사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다가 2월 중순 6-7개사로 압축된 후 2월말에는 삼성항공과 캐나다 봄바르디어가 인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에어로스 파시알, 봄바르디어, 브리티시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관심을 보였고 인디아의 힌두스탄항공도 각종자료를 요구했었다. 매일경제신문 2월 27일자 파격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포커사의 최종 인수기업이 2월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데 로이터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커사는 핵심

사업부인 항공기제작사업부를 인수할 회사를 발표할 예정인데 삼성항공과 봄바르디어사가 수주일동안 포커사의 회계장부 및 공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Van Schaik 회장은 포커사의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이 50%는 항공기 수요감소로 인한 것이고, 30%는 수요 감소와 공급가격으로 항공기 판매가격의 하락에서, 그리고 25%는 미 달러에 대한 네델란드 길더의 환율절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의 제편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부담의 증가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포커사는 1월 22일 모기업인 다임러벤츠가 자금지원을 중단한 뒤 채권단으로부터 네델란드 정부 보증하에 2억 5500만길더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아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

현대전자, 위성사업에 본격 참여

현대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위성제작에 착수한다.

지난 1월 23일 동 사는 글로벌스타(Global Star)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로랄(Space Systems Loral)사에 오는 2005년까지 4억달러 규모의 저궤도 소형위성 26기를 공급기로 계약했다. 또 이탈리아의 알레니아 스파지오(Alenia Spazio)사로 부터 인공위성제작 및 시스템운영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지난 '94년 4월 로랄사로부터 저잡음 증폭기(LNA) 주파수 변환기 국부발진기등 제1세대 위성용 핵심부품 4천 4백만달러어치를 공급기로 계약한바 있는 동 사는 이번 협정으로 제2세대용 핵심부품을 추가로 공급하고 제1세대 추가 및 2세대 위성체물량의 25%를 조립제작해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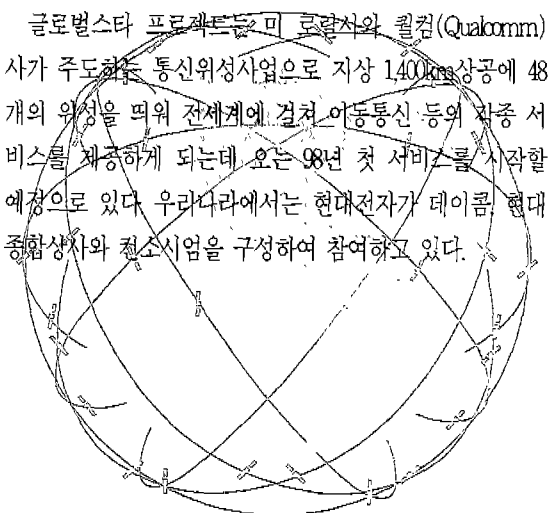
동 사는 이 사업을 위해 '97년까지 1억5천만달러를 투자하고 40명의 기술진을 미국과 이탈리아에 파견해 관련 기술을 전수받아 '97년 1기, '98~'99년에 5기, 2000~2005년에 20기등 총 26기의 글로벌스타 위성을 제작공급할 예정이다.

또 알레니아사와는 2000년경 대량수요가 예상되는 아

시아태평양지역 위성 및 차세대 한국위성등 총 14기의 정지궤도용 상용인공위성 제작사업도 공동추진키로 합의했다.

한편 동 사업은 현대그룹내 항공우주사업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위성체는 통신중계기기로 분류되어 전자통신 장비 및 통신서비스 사업과 연계되므로 현대전자가 맡아 경기도 이천 본사에 사업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항공기 및 우주발사체는 항공기계로 분류되어 현대우주항공이 담당한다.

글로벌스타 프로젝트는 미 로랄사와 퀄컴(Qualcomm)사가 주도하는 통신위성사업으로 지상 1400km상공에 48개의 위성을 띄워 전세계에 걸쳐 이동통신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오는 98년 첫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전자가 데이콤, 현대종합상사와 전소시업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보잉사 747 스트레치 착수 임박 2014년까지 350대 판매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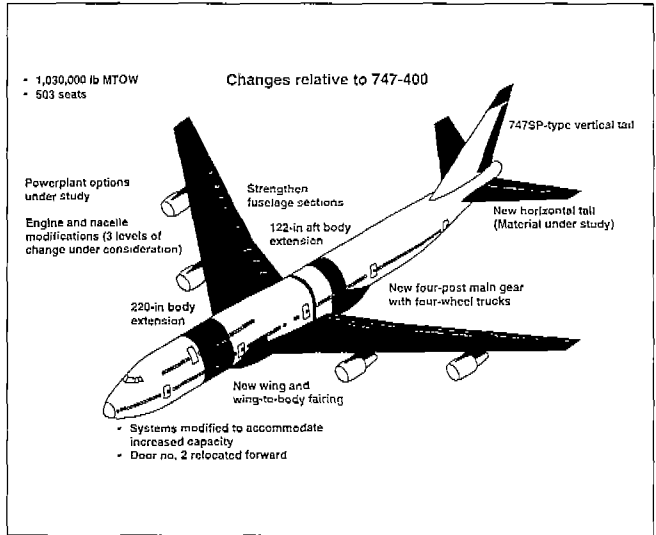
브리타시에어웨이,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등이 보잉사와 747-600x의 주문을 놓고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47-600x는 현 747 동체를 확장한 파생형인데, 보잉사는 오는 4월에 열린 항공사와의 회의에서 항공기의 요구사항과 형상을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747-600x는 금년 12월월경에 Launch될 것으로 보이는 데 그후 6개월 이내에 420-450석의 747-600X 개발도 개시할 예정이다.

신형기의 개발 포인트는 74m길이의 날개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777의 날개를 약 30% 크게 한 것과 같다고 보잉사 Borge Boeskov 부사장이 발표했다. 주 형상에 대한 의문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엔진인데 보잉사는 새로운 형식의 엔진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CF6080EI(GE),PW4168(P&W), Trent700(RR)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성능과 소음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보잉사는 2014년까지 747-500/600두가지 기종의 예상 판매량을 약 350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747-600 기종의 수요를 747-500보다 약 2배 많은 249

대로 보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747-500X의 인도는 2000년 경에 이루어질 것이며 현 모델인 747-400기종은 2003년까지 생산될 것이라고 한다. 보잉사는 지난해 중순까지 개발 타당성 조사를 에어버스사와 공동으로 시한 결과 현 상태에서는 시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수요가 생길때까지 수퍼점보기 개발계획을 연기하는 대신 747-400기종을 개조하기로 결정했었다. 에어버스사의 수퍼점보기 개발계획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는데 80억달러에 이르는 개발비 부담에다 747파생기종과의 경쟁을 생각하면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본 항공기분야 CALS체제 構築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주관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항공기업계가 '97년도를 목표로 설계도면이나 부품정보를 기업간에 공유하는 광속거래(CALS)를 구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항공기업계의 CALS구축은 통산성이 지원하는 업종별 CALS연구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며 일본항공우주공업회가 그 주체로 새 시스템을 구축한다.

새 시스템은 설계·해석·부품발주·보수 등의 컴퓨

터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표준규격 'STEP'을 채용, 서로 다른 3차원 CAD(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를 이용하여 기업간에도 도면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새 시스템은 또 민간항공기뿐 아니라 군용항공기 개발에도 이용할 계획이며 해상자위대의 구난비행정 'USIA'의 개량사업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산성은 항공기개발에 적용되는 CALS를 자동차, 조선, 철강등 업종별 CALS연구 프로젝트의 하나로 확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미 항공우주업계 순위 재편 Lockheed Martin 220억달러 매출로 1위차지

지난해 록히드 마틴의 합병으로 미국 항공우주업계의 순위가 바뀐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이트 인터네셔널지가 보도한바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사가 작년 한해동안 219억 6,000만달러의 매출액을 올려 보잉사를 누르고 선두에 올라섰다. 보잉사는 777기종의 폭발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195억 1,500만달러의 매출액으로 2위에 그쳤다. 1994년에 합병한 노드롭-그루먼사는 67억 1,300만달러의 매출액으로 7위에 랭크됐다. 동사의 순이익은 합병 당시 3,500만달러에서 2억 5,200만달러로 합병후 경영이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맥도널 더글러스사는 139억 6,6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려 3위를 차지했으나 1994년 순이익 5억 9,800만 달러와는 대조적으로 지난해에는 4억 1,6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보잉사와의 합병설이 소문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

1995년 미국 항공우주업계 매출액 순위

회사명부문	항공우주 부문 매출	매출액		경상이익		순이익	
		1995	change	1995	1994	1995	1994
Lockheed Martin	21,960	22,853	-0.2%	9.0%	8.6%	682	1,018
Space & Missiles		7,521	1.9%	9.2%	7.1%		
Aeronautics		6,671	-6.7%	8.0%	7.2%		
Info & Tech Services		4,528	6.0%	6.5%	5.3%		
Electronics		3,294	-18.8%	10.7%	11.2%	393	856
Boeing	19,515	19,515	-11.0%	5.7%	6.1%		
Commercial		13,933	-17.3%	5.3%	6.1%		
Defense & Space		5,582	17.7%	6.6%	6.4%		
McDonnell Douglas	13,966	14,332	8.8%	8.4%	8.1%	-416	598
Military		8,158	4.5%	11.1%	9.1%		
Commercial		3,891	23.3%	1.0%	1.5%		
Miss/Space		1,917	2.1%	10.3%	14.0%		
United Tech	9,117	22,802	7.6%	7.0%	6.4%	750	585
Pratt & Whitney		6,170	5.5%	8.6%	6.5%		
Flight Systems		2,947	-8.4%	7.1%	8.8%		
Hughes Electronics	9,038	14,772	4.8%	2.0%	11.4%	948	925
Aerospace & Defense		5,945	-1.3%	11.6%	11.0%		
Telecom and Space		3,093	19.1%	6.1%	10.4%		
Raytheon	7,370	11,716	17.0%	11.0%	10.8%	793	597
Electronics		5,346	33.1%	15.8%	16.9%		
Aircraft		2,024	17.5%	13.4%	13.5%		
Northrop Grumman	6,713	6,818	1.6%	9.3%	8.7%	252	35
Military & Commercial Aircraft		4,384	-5.4%	10.0%	10.4%		
Electronics & Systems		2,182		41.0%	8.2%	7.9%	
Missiles & UAVs		147	-57.8%	0.7%	5.2%		
AlliedSignal	5,084	14,346	11.9%	8.8%	9.0%	875	759
AeroSpace		5,084	10.0%	6.0%	5.6%	303	260
Rockwell Int	4,802	12,981	16.7%	12.0%	10.9%	742	634
Aircraft		1,882	-7.9%	14.8%	14.2%		
Space Systems		565	-3.1%				
Avionics		1,368	1.9%	14.1%	14.8%		
Defence Electronics		987	-1.1%				

* Lockheed Martin사는 9월까지 집계된 것임. General Electric과 Lockheed사는 집계되지 않음

Aerospatiale, 개별투자 적극유치 민영화 임박

프랑스의 에어로스파살(Aerospatiale)사는 개별투자자들의 자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동안 프랑스정부의 자금규정과 자유무역정책은 개별투자자들에게 열려있었으나 동사와 같은 국영기업에 대한 개별 투자자들의 참여가 불가능했다.

현재 Aerospatiale사는 상용기 시장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자금압박, 미 달러화에 대한 환율에서의 불이익, 채무 과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사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20억달러 규

모의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이를 민간 투자자들이 지불할 경우, 프랑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83% (나머지 17%는 Consortium de Realisation사가 보유)의 일정 부분이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Consortium de Realisation사는 자사 주식처분을 거부했다.

95년, 동사의 매출액은 98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채무도 13억달러로 94년에 비해 2억달러가 감소했다.

Aerospatiale 사는 리스트럭처링을 통해 이미 3,100명의 근로자를 삭감하고 유로콥터(Eurocopter)사의 800명을 추가 휴직시켰다. 아울러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제외한 사업 전 부문에서의 비용감축에 들어가. 98년말까지 약 6억달러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다.